

고창군민 삶 만족도 전북지역 1위

2020 전북 사회조사 결과
소득·소비 경제활동 만족도 높아
다문화 가구 긍정 응답 많아

고창군 주민들이 느끼는 삶 만족도가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 가구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이 높아 민선 7기 고창군의 '자랑스러운 고창만들기 운동'을 통한 사회통합이 큰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가 발표한 '2020년 전북 사회조사'에서 고창군민의 '삶 만족도'는 6.9점(10점 만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가장 높았고 평균 6.2점보다 0.7점에 높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에 대한 만족도 긍정 비율이 62.4%, 전반적 소비생활 만족도 긍정비율이 56.4%였다. 군민 절반 이상이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소득의 경우, 전국 최고가로 거래되는 특화작물(수박, 복분자, 멜론, 고구마, 쌀 등)을 비롯해 어업(바지락, 장어 등), 문화·서비스 제공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고창사랑상품권 발급 등 지역경제 살리기,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추진이 경제활동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전북도가 발표한 '2020년 전북 사회조사'에서 고창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상 고창군수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구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서 군민 47.7%가 긍정적으로 답해 눈길을 끌었다. 다문화 가구 증가에 대해서도 긍정 응답 비율이 65%로 나타나 평균 37.9%보다 크게 앞섰다.

민선 7기 유기상 고창군수는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이 공존하는 마을"을 핵심 공약으로 정하고 다문화 이해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실제 지난 지난해에는 사상 최초로 다문화 업무를 담당

할 이주여성 공무원을 채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매년 전북도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전북사회조사는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시민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분석한다.

지난해는 도내 1만3515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8월19일~9월7일까지 진행됐다. /고창=김형주 기자 khj@kwangju.co.kr

나눔 실천 온정의 손길

김성훈이비인후과·중앙약국, 장흥지역 교복비 1000만원

김성훈이비인후과(원장 김성훈)와 중앙약국(대표 박정민)은 최근 장흥지역 저소득가정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사용해달라며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 기탁금은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저소득 신입생들에게 운동복·가방·신발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김성훈 원장과 박정민 대표는 장흥에서 의원과 약국을 운영하는 부부 후원자로 지난 2017년부터 5년째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및 물품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박정민 중앙약국 대표는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흥지역 청소년들이 위축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한다"며 "이번 후원이 청



소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항상 함께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청암봉사협의회, 여수 장애인 가정에 마스크 1000장 후원

(세청암봉사협의회(주지 지암스님)는 최근 저소득층 코로나 취약가정에 전해 달라며 KF-94 마스크 1000장을 여수시에 기탁했다.

마스크는 여수시가 추진 중인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인 '여수형, 섬섬여수 보건복지 플랫폼'과 연계해 장애인·다문화·한부모 가정 등 복지 위기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청암봉사협의회는 광주소년원 멘토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정에 대한 생필품 지원, 지역사회 환경정화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가 일상화된 요즘 생활환경이 어려운 가정의 마스크 구입은 경제적 부담"이라며 "후원물품은 플랫폼 사업을 통해 발굴된 저소득 다문화,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꼭 필요한 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값지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익산시, 과기부 'XR 실감콘텐츠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 선정

70억 투입 원광대에 센터 건립

익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익산시는 홀로그램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 등을 포괄하는 XR(extended Reality) 실감콘텐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센터 구축 사업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육성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익산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국 유일의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를 구축

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비즈니스 매칭 등에 나선다.

개발지원센터는 국비 40억원 등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 원광대학교 내 기존 건물에 3층 규모, 연면적 2113㎡로 조성된다.

내부에는 XR 소재·부품·완제품 테스트 지원을 위한 장비 구축과 기술개발실, 회의실과 기업의 입주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센터는 전북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가 주관하고 원광대학교, 한국화학연구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이 참여해 운영한다.

익산시는 구축된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와 연계해 소재·부품·완제품·콘텐츠·서비스로 이어지는 XR 산업생태계 전 분야의 수요·공급 기업간의 비즈니스 매칭과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홀로그램 사업에 이어 이번 XR산업 센터 유치로 익산시가 실감콘텐츠 산업분야의 선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산업지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미래먹거리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정읍시 수제화 장인 양성기관 문 열었다

수성동에...청년 메이커센터

기술교육장·전시장 등 갖춰

정읍시에 수제화 장인 양성기관인 '청년 메이커센터'가 지난 2일 문을 열었다.

정읍 수성동에 들어선 센터는 국비 7억원과 도비 4억원 등 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전체면적 753㎡에 2층 규모로 조성된 센터에는 기술교육장과 수제화 전시 전시장, 커피 등이 들

어졌다. 이 사업은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 일자리 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지방의 저렴한 땅과 인력 공급을 통해 수제화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됐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청년 메이커센터는 청년들의 꿈과 새로운 시도를 지원하고 실현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될 것"이라며 "도제 방식 기초 교육과 심화 교육 수료 후 안정적 창업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산불예방 캠페인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취약지역에서 오는 15일까지 찾아가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를 찾아 실시하던 과거와 달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대면접촉은 피하면서 실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인 산림 근처 농경지와 주택 등 시설

을 직접 방문해 산불예방 전단과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산불예방 협조를 당부한다.

김경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내 산불의 68%가 실화 및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캠페인을 1회에 그치지 않고 전남 동부권 9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활동을 실시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